

288장 -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 (1)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 (2)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 (3)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하리로다 아멘

510장 - 하나님의 진리 등대

- (1)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 (2)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무리 많구나
- (3)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취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 후렴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6월 22일(금) 기도 담당 : 김영인 집사

2018년 6월 21일(목)

이른아침예배

인도 : 이신기 목사

예배를 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288장 다 같 이
기 도 안상은 집사
성 경 봉 독 욥기 24장 13~17절 인 도 자
찬 양 새벽찬양대
설 교 『빛과 어둠』 이신기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510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 욥기 24: 13~17 >

13)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14)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 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 같이 되며 15)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16)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17)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 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앎이니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8년 6월 21일(목)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계시기에 새날을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헛되이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욕기 말씀을 통하여 빛 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인의 삶이 아닌,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두운 세상 속에 예수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평화를 갈망하는 이때에 주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한반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사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새문안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새문안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견고히 서가게 하시며,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이상학 담임목사님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십니다. 회복되어지는 과정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게 하옵소서. 계속 되는 새 성전 건축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병상 가운데 있는 교우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 있는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